

댄서 립제이 “클래식에 왁킹, 이색 도전...황홀한 무대될 것”

31일 롯데콘서트홀 송년음악회 무대 사라사테 ‘치고이너바이젠’에 왁킹 춤 “클래식 드라마틱 전개, 왁킹과 닮아”

“왁킹의 진면모는 긴 호흡의 곡에서 더 잘 드러나요. 왁킹의 근본이 되는 언더그라운드 디스코 음악을 들어보면, 사실 템포나 구성이 조금 다를 뿐 클래식의 서사와 비슷한 호흡이 많죠. 클래식은 악장이 전개될수록 드라마틱한 이야기를 하는 곡이 많은데, 왁킹과 비슷하다고 느껴요.”

지난해 방송된 엠넷 ‘스트릿 우먼 파이터’로 큰 사랑을 받은 ‘왁킹 여제’ 립제이가 클래식 선율에 몸을 맡긴다. 오는 31일 서울 송파구 롯데콘서트홀에서 열리는 송년음악회에서 바이올리니스트 조진주가 협연하는 사라사테의 ‘치고이너바이젠’에 맞춰 왁킹을 선보인다.

립제이는 최근 뉴시스와의 서면 인터뷰에서 “이색적인 도전”이라며 “결국 좋은 음악과 춤은 눈과 귀를 황홀하게 한다. 클래식과 대중문화예술이 사실 멀지 않음을 느끼게 될 무대”라고 말했다.

클래식 공연장에 서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그는 “원래부터 이 공간에 녹아있는 사람처럼 보이는 게 목표”라며 “음악의 아름다움에 집중해서 춤을 풀어낼 것”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길거리, 야외무대, 골목길, 강가, 대강당, 세트장 등 제약 없이 많은 공간에서 춤을 춰왔어요. 그런데 클래식 홀에서 연주자들과 한 무대에 서는 건 스트릿 댄서로서

아직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죠. 제 퍼포먼스가 연주자들과 한 무대에서 어떻게 융화될지 저도 기대돼요.”

립제이는 이미 클래식 음악에 왁킹을 춘 경험이 있다. 지난 2017년 러시아에서 열린 ‘왁킹 세어링’ 행사에서 바로 ‘치고이너바이젠’에 맞춰 춤을 췄다. 이 유튜브 영상은 뜨거운 반응을 얻었고 현재 230만 조회 수를 넘었다. 사실 당시 이 곡을 하기까지 굉장한 망설임이 있었다. 그날 립제이가 존경하는 왁킹 마스터가 행사에 참석하는 만큼, 안전하게 디스코 음악으로 바꿀까 고민도 했다. 하지만 바이올리니스트 장영주의 팬이자 클래식을 좋아하는 어머니에게 바치는 생일 선물로 용기를 냈다.

“공연 당일 어머니 생일이었어요. 영상으로라도 전달할 수 있지 않을까 제 팬엔 용기 있는 선택을 했죠. 항상 담담하고 철부지 같은 딸이지만, 엄마도 공감할 수 있고 제게도 도전이었던 무대를 하고 싶었어요. 지금은 하길 잘했다고 생각해요. 그 덕분에 이번 기회도 생긴 거죠.”

“치고이너바이젠”을 처음 들었을 때의 강렬함은 립제이가 왁킹을 처음 만났을 때와 많이 닮아있다고 했다. “바이올린이 주인공인 이 곡은 현으로 표현할 수 있는 기승전결이 다 들어가 있다”며 “그 소리를 제 춤의 테크닉으로 표현해낸다면 정말 멋지겠다고 생

각했다”고 돌아봤다. “왁킹은 팔과 손동작을 많이 쓴다는 점에서 감정표현과 음악의 선율을 직접적으로 눈에 보이게 해주죠. 곡의 표현력이 드라마틱해질수록 그 매력이 고스란히 전해져요. ‘치고이너바이젠’은 사람을 홀리며 8분 내내 밀당해요. 애잔하고 서정적이며 강렬하다가 공허해지고, 열정적이다가 차가워지며 로맨틱해지는 다양한 느낌이지요. 그래서 왁킹과 잘 맞아요. 특히 왁킹의 춤사위는 현악기의 소리와 많이 닮아있죠.”

정열적인 이 곡과 반대되는 성향의 곡에도 도전해보고 싶다고 했다. “차분하고 여유로운 음의 기운이랄까요. 하하, 드뷔시를 좋아하는데 ‘달빛’에 춤추면 또 다른 느낌일 것 같아요.”

10살 때 한국무용을 배운 립제이는 18살 때부터 본격적으로 춤의 세계에 발을 내디뎠다. 국내외 대회에 나가 우승하며 이름을 알렸고, 지난해 ‘스우파’로 대중들에게 큰 인기를 얻었다. “작년부터 정말 끝없는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 진심으로 복이 많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며 감사하게 활동하고 있다”며 “일상에 춤이라는 소재가 음악처럼 자연스러운 형태로 자리잡는 것 같아 기쁘다”고 말했다.

클래식 무대뿐만 아니라 다양한 장르와의 협업에 얼마든지 문이 열려있다고 밝혔다. “판소리도 소화할 수 있을 것 같다”는 댓글에도 “좋다”고 호쾌하게 답했다. “협업은 언제나 좋다. 기회가 된다면, 앞으로도 다양한 분야의 융합을 거침없이 다 해보고 싶다”고 전했다.

“송년음악회에서 오케스트라 연주자들과 한 무대에 서는 것도 이뤄내고 싶은 목표 중



하나였어요. 이렇게 빨리 현실이 될 줄 몰랐죠. 무용수로 계속 활동하면서 좀 더 다양한 플랫폼을 통해 소통하는 아티스트가 되고

싶어요. 저는 ‘멋있고 재밌는 건 일단 다 해보자’는 성격이죠. 많이 도전할게요. 기대해 주세요.”

송혜교, 첫 장르극 “항상 역할에 고파...드디어 만났다”



배우 송혜교가 장르극에 도전한 소감을 밝혔다.

송혜교는 20일 서울 동대문구 JW메리어트 호텔에서 열린 넷플릭스 ‘더 글로리’ 제작발표회에서 “함께 하는 작가, 감독님이 첫 번째였

넷플릭스 ‘더 글로리’...학폭 피해자 연기

다”며 “극본을 읽었을 때 그동안 너무나 해보고 싶은 장르, 캐릭터였다. 항상 역할에 배고왔는데, ‘드디어 만났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털어놨다.

“극본을 읽으면서도 마음이 너무 아팠고 한동안 멎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싶더라. 완벽하게 표현해줘서 ‘나만 잘 한다면 좋은 작품이 나오겠다’고 생각했다”며 “기존에 멜로 드라마를 많이 해 이번에 보여주는 모습이 낯설게 느껴질 수도 있다. 너무 어려웠지만 즐겁게 연기했다”고 돌아봤다.

특히 송혜교 김은숙 작가가 ‘태양의 후예’(2016) 이후 6년 만에 만나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날 김 작가는 머리가 새하얗진 모습으로 등장했다. “대표작이 알콩달콩해 첫 장르극이 상상되지 않는 것 같다”면서도 “고등학교 생활의 생활은 알콩달콩할 겨를이 없다. ‘정말 나쁜 것 잘 할 수 있겠다’ 싶더라. 염색도 포기하고 온갖 악의를 담아 장르극을 준비했다”고 설명했다.

김 작가는 “널 모르면 고2가 되는 딸의 학부모 형이라서 학교폭력 소재는 가까운 화두였다”며 “딸이 나 때문에 불필요한 관심을 받고 오

해로 번지지 않을까 걱정했다. 어느 날 딸이 ‘엄마, 언제적 김은숙이야?’라고 해 충격이었다. 두 번째로 ‘엄마는 내가 죽도록 때리면 가슴 아플까, 내가 죽도록 맞고 오면 가슴 아플까?’라는 질문이 충격이었다. 그 순간 많은 이야기가 펼쳐 지나갔고 작업실에 가 컴퓨터를 켜다”고 회상했다.

“(학폭) 피해자 글을 많이 읽었는데, 현실적인 보상보다 가해자의 진심 어린 사과를 원한다고 하더라. 세속에 찌든 나로서는 ‘진심 어린 사과로 얻어지는 게 뭘까?’ 고민했다. 폭력의 순간에 명예, 영광 등을 잃게 되는데 사과를 받아내야 비로서 원점으로 돌아간다고 생각해서 제목을 더 글로리로 정했다. 이 세상의 피해자에게 보내는 응원이다.”

이 드라마는 유년시절 폭력으로 영혼까지 부서진 ‘문둥은’(송혜교)이 온 생을 걸어 복수하는 이야기다. ‘비밀의 숲’(2017) ‘알함브라 궁전의 추억’(2018~2019) 안길호 PD가 연출한다. 이도현을 비롯해 임지현, 박성훈, 염혜란, 정성일 등도 힘을 실는다. 총 16편이다. 파트1은 12월30일, 파트2는 내년 3월에 공개할 예정이다.

‘아바타:물의 길’ 일주일만에 300만명 돌파



영화 ‘아바타:물의 길’이 300만 관객 고지를 밟았다. 개봉 일주일만이다.

영화진흥위원회와 월드즈니컴퍼니코리아에 따르면, ‘아바타:물의 길’은 20일 오전 7시 현재 누적 관객수 307만3013명을 기록했다. 올해 국내 개봉 영화 중 300만명 이상 본 작품은 ‘아바타:물의 길’ 포함 ‘범죄도시2’(1269만명) ‘탐견:매버릭’(817만명) ‘한산:용의 출현’(726만명) ‘공조2:인내서남방’(698만명) ‘닥터 스트레인지:대혼돈의 멀티버스’(588만명) ‘헌트’(435만명) 등 7편이다. 현재 흥행 추세라면

‘아바타:물의 길’은 무난히 400만 관객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

20일 오전 8시30분 현재 예매 관객수는 83만8776명이다.

‘아바타:물의 길’은 2009년 외국영화 최초로 1000만 관객을 넘긴 ‘아바타’(1333만명)의 후속작이다. ‘아바타’는 총 수익 29억 달러(약 3조7640억원)로 역대 전 세계 흥행 순위 1위에 올라 있다. 이번 영화는 전작에서 부부가 된 ‘설리’와 ‘네이티리’가 네 아이들과 함께 가족을 이루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그렸다. 전작에서 사망한 ‘쿼리치’가 아바타로 다시 태어나 설리와 네이티리에게 복수를 감행하자 설리·네이티리 가족은 바다에서 살아가는 바 부족 멧케이나족과 함께 살아가기로 결정한다. 샘 워딩턴과 조이 살다나가 다시 한 번 각각 설리와 네이티리를 연기했고, 쿼리치 역의 스티븐 랭도 또 한 번 출연했다. 또 시고니 위버, 케이트 윈슬렛 등도 함께했다.

뉴진스, Y2K 감성 夏 이어 冬 음원차트 녹여

올해 신드롬을 일으킨 걸그룹 ‘뉴진스(NewJeans)’가 여름 음원차트에 이어 겨울 음원차트도 장악할 기세다.

20일 소속사 어도어(ADOR)에 따르면, 뉴진스가 전날 오후 6시 음원사이트에 공개한 새 싱글 ‘디토(Ditto)’는 직후인 오후 7시 기준 빅스, 지니, 멜론에서 각각 1위, 3위, 4위를 기록했다. 이어 오후 8시부터 당일 실시간 차트에서 모두 최정상에 올랐다. 특히 이날 오전 9시 기준 국내 최대 음원 플랫폼인 멜론의 톱100에서 1위를 달리고 있다.

‘디토’는 국내에서 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인기를 누리고 있다. 이날 오전 7시 기준 필리핀, 태국, 베트남을 포함한 전 세계 7개 국가/지역의 아이튠즈 ‘톱 송’ 차트 1위에 올랐다.

또한, 싱글이 발매된 날 오후 7시(현지시간) 중국 최대 소셜 미디어인 웨이보 통합 실시간 검색어 2위에 ‘디토(Ditto)’가 오르는 등 현지에서도 존재감을 과시했다.

‘디토’는 올해 여름 첫 EP로 신드롬을 일으킨 걸그룹 ‘뉴진스(NewJeans)’의 트리플 타이틀곡 중 한국인 ‘어텐션’의 겨울 버전이라 부를 만하다. ‘어텐션’이 정량하면서 아련했다면, ‘디



토’는 청량하면서 애뜻하다.

‘디토’는 미국 볼티모어 클럽 댄스 뮤직 장르를 재해석한 곡인데 미국 DJ 겸 프로듀서 로드리(Rod Lee)의 ‘댄스 마이 페인 어웨이(Dance My Pain Away)’ 등으로 대표되는 볼티모어 댄스 뮤직은 터프한 볼티모어 지역에서 생겨난 특유의 아련함과 애뜻한 두근거림이 있다. ‘디토’는 청춘의 혼란스러움을 슬픔이 배인 아련함으로 승화한다. ‘어텐션’, ‘디토’ 모두 프로듀서 겸 DJ 이오공(25)이 중심이 돼 만들었다. 애뜻한 가사는 뉴진스 멤버 민지와 이 방면에 선수들이인 싱어송라이터 김정지·우효의 합작품이다.

트와이스, 올해 美 스포티파이 2억8천만회 재생...K팝 걸그룹 1위

전 세계 누적 스트리밍 총합 55억 건 돌파, 음원 파워 과시

그룹 트와이스가 올해 글로벌 차트에서 활약세를 뽐냈다고 소속사 JYP엔터테인먼트가 20일 성과를 공개했다.

트와이스는 지난 15일 글로벌 음원 스트리밍 플랫폼 ‘스포티파이(Spotify)’에서 올해 미국 내 음원 재생 수 2억8941만 회를 기록했다. 이로써 트와이스는 올 한 해 미국 현지팬들이 가장 많이 스트리밍한 K팝 걸그룹이 됐다. 최근에는 전 세계 누적 스트리밍 총합이 55억 건을 돌파하는 등 음원 파워를 과시했다.

이들은 단일 앨범으로도 호기적을 쌓았다. 트와이스의 최신작 ‘비트윈 원엔투(BETWEEN 1&2)’의 타이틀곡 ‘톡톡톡(Talk that Talk)’은 발매 당일인 8월 26일 자(현지시간) 스포티파이 데일리 톱 송 글로벌 차트 49

위로 진입해 첫 톱 50이자, 자체 최고 기록을 썼다. 데일리 톱 송 미국 차트에서도 83위를 기록해 첫 톱 100 진입에 성공했다.

글로벌 위클리 앨범 차트와 송 차트(8월26일~9월1일)에서도 각각 41위, 54위를 차지한 데 이어, ‘톡톡톡’은 12월 4일 기준 누적 스트리밍 1억 회를 넘겼다.

미국 빌보드에서도 영향력을 입증했다. 지난 6월 발매한 멤버 나연의 솔로 데뷔작 ‘아이엠 나연(IM NAYEON)’과 타이틀곡 ‘팝!(POP!)’은 빌보드 메인 차트 ‘빌보드 200’ 7위, ‘아티스트 100’ 5위를 비롯해 ‘톱 앨범 세일즈’, ‘톱 커런트 앨범 세일즈’, ‘월드 앨범 1위’ 등 빌보드 총 18개 차트에 랭크인했다. ‘비트윈 원엔투’는 음반과 스트리밍 함께 판



매량에서 10만을 찍으며 ‘빌보드 200’ 3위에 올랐다. 이들은 사상 첫 ‘아티스트 100’ 1위를 포함해 ‘톱 앨범 세일즈’, ‘톱 커런트 앨범 세일즈’, ‘월드 앨범까지 빌보드 4개 차트 정상을 석권하고 빌보드 총 21개 부문에 이름을 올렸다. 빌보드가 지난 1일 발표한 연말 결산 차트에서는 ‘빌보드 200 아티스트’ 94위로 K팝 걸그룹 중 유일하게 차트인에 성공했다. 여기에 솔로로 데뷔한 나연이 가세해 총 8개 빌보드 연말 결산 차트를 접수했다.